

대학도서관 사서의 역할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도서관부관장/교수 정준민

〈목 차〉

- I. 정보사회와 정보관리
- II.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 III. 대학도서관 사서의 역할
- IV. 결 론

I. 정보사회와 정보관리

20세기 초 산업혁명이 우리 삶의 질을 높였다면 정보사회는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어 버렸다. 통신의 발전은 지구촌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에 일대 혁명을 가져왔다. 매일 얼굴을 마주 대해야 했던 많은 일이 화상통신의 방법으로 바뀌었으며 거의 매일 쓸어야지던 종이매체의 보고서나 정보가 전자매체로 바뀌며 유통과 교통 심지어 교육에 이르기 까지 우리의 철학기반 자체가 바뀐 것이다.

정보사회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정보통신 사회라면 다음 단계가 정보서비스 사회다. 정보서비스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구조를 의미한다. 114 및 700 전화 서비스, 유선방송망을 통한 통신판매, 인터넷을 통한 광고 및 사업행위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다. 도서관도 예외는 아니다. 덩그런 건물에 서가와 책상을 나열해 놓고 이미 낡아 빠진 책들을 배열하곤 이용을 강요하는 그런 도서관이 아닌 이용자 모두 정보통신망이 연결된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도서관에 접

근할 수 있으며 바로 어제 전자매체로 출판된 책을 오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를 이름하여 우리는 전자도서관이라 부른다.

전자도서관을 정보통신의 관점에서 정의하여 보면 중앙제어와 분산처리의 대표적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색인, 목록 등 2차자료는 중앙제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일차 정보는 분산처리로 해결할 수 있다. 현재의 도서관 시스템은 출판사에서 생산된 정보를 직접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지만 전자도서관은 정보를 출판사로부터 가져오지 않고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보는 생산자의 손에, 그리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는 사서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것이 정보사회에서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일반 기업에서도 사원이 생산한 서류는 그 사원의 컴퓨터내에 있고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과장, 부장, 사장에 의해 그 서류가 검토되어지고 결재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차세대 정보사회에서 정보관리는 분산네트워크 환경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지금처럼 정보가 복제되고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는 늘 그곳에 있으면서 접근의 개념에서 이용되어질 것이다.

II.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이른바 전자도서관으로 대변되는 정보사회에서 대학도서관의 위상도 바뀌어야 하며 역할도 조정되어야 하리라 본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은 대학구성원에 학술정보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휴식과 오락의 장소로서도 제공되어지고 있다. 문헌정보학적 정의에 의하면 도서관은 장서와 건물과 이를 운영하는 사서로 이루어진 유기체라 한다. 그러나 전자도서관의 환경은 도서관의 장서를 분산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결국 장서가 없는 도서관은 건물의 중요성 마저 감소시키고 말 것이다. 그럼에도 전자도서관이 도서관의 한 형태라면 도서관의 정의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는 도서관 뿐 아니라 네트워크 상에서의 모든 서버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즉, 대학 구성원들은 과거처럼 도서관을 통해서만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World Wide Web 체계에서 전자화된 정보를

자신의 연구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도서관으로 하여금 정보서비스기관으로서의 경쟁적 상대를 갖게된 것을 의미하며 어떻게 보면 대학의 구성원들이 도서관을 외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이제 대학도서관은 과거처럼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고 소극적으로 이용자들이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네트워환경에서의 정보서비스는 정보소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비록 자판이 소장하지 않은 정보라 할지라도 그 소재가 확인되면 즉각 이용(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비록 그렇지 못하여도 상호대차 등의 서비스를 통해 지금보다 나은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도서관간의 상호대차는 어느 한 도서관에 대해 일방적인 서비스를 강요할 수는 없다. 회원교간에 상호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하며 결국은 전전한 상호대차를 위해서는 분담수서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분담수서는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으나 특정주제에 대해 수서를 분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본다. 즉, 어느 한 도서관이 특정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서를 전담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는 회원교간 상호대차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그 도서관은 다른 주제에 대해 타 도서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출판되어지고 도서관에 소장된 정보에 대해서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서비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앞으로 간행되어질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출판사 또는 저작권의 행사를 대행할 중간 도매상들에 의해 정보는 소유되어지고 도서관은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차정보만을 서비스함으로써 정보의 이중투자를 방지하고 서비스에 기초한 정보의 가격이 책정되어져 도서관의 부담도 줄이면서 저작자의 권익을 용호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도 도서관은 원정보는 소유하지 않았으나 특정 주제에 대해 특정 도서관이 집중적으로 이차정보를 가공, 생산함으로써 보다 고급의 정보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바뀐 정보환경에서의 도서관 특히 대학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정리해 보면 도서관은 원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아니라 원정보에 대한 소재와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Reference 기관이며 대학도서관마다 자신의 독특한 주제를 선정하여 국내외 정보에 대한 이차정보를 생산,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정보에 대한 공급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의 이차정보에 대해서는 국내에 상업적인 라이센스 사이트(외국의 서지 db를 개수로 수입, 판매하는 것이

니라 우리나라 전체수요를 예측하여 서비스할 것을 전제로 배포권한을 확보하여 제공하는 기관)을 통하여 각 대학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용료를 지불케 함으로써 정보공유의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

III. 대학도서관 사서의 역할

정보사회에서 모든 정보서비스 기관이 네트워환경에서 정보의 분산처리와 Reference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면 그 기관에 속한 정보서비스 종사자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의 도서관은 정보의 수집과 가공 그리고 관리가 주된 기능이었다면 정보사회에서의 사서의 역할은 정보서비스가 주된 기능으로 분산된 정보자원을 연결짓고 그것을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도록 재가공하는 것이 주요 업무로 등장할 것이다. 즉, 특정 주제로 특화된 영역에서 사서는 지금의 사서처럼 정보를 목적삼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를 파는 행위 자체에 비중을 두는 그런 일을 해야할 것이다.

먼저 사서는 전통적 사서의 역할인 정보에 대한 이해와 의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비록 지금의 사서처럼 정보에 대한 이해와 의견을 가졌다해도 정보처리 기술 (분류, 목록 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보다는 정보의 속성과 정보 이용집단의 행위 자체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사서는 담당주제 영역에서 지식에 의존하여 정보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속성과 행위에 대한 인식에서 정보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학을 담당한 사서라 할 경우,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대해 주제배경을 갖고 그 정보요구에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주제에 대해 전문성은 갖지 못하였다 하여도 이미 출판되어진 화학관련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말을 그 주제에 대한 전혀 무지하다는 뜻은 아니다. 사서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과 그 영역에 대한 오랜 서비스를 통하여 충분히 최소의 기본은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사서는 출판정보에 대해 민감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사서는 특정영역의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출판사나 2차, 3차자료를 통하여 획득하기 보다는 이용자의 요

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식으로 열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보 사회에서 정보는 복제되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출판사 또는 중간도매센터의 서버에 소장되어지고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확보되어야 열을 수 있으므로 사서는 늘 새로운 정보에 대해 경로를 개발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정보서비스가 가능한 것이다.

한편 사서는 정보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주제적 특성(내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즉, 공저자 지도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이차정보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인용문 분석, 색인어 분석등을 통하여 주제집단을 분류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처럼 분류표에 대입하는 식의 기계적인 분류가 아닌 독창적인 분류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자신의 주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제적 내용을 통한 이해이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력을 갖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서는 이용자의 주제적 요구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진정 전문가로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사서가 가져야 할 능력 중의 하나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들 수 있다. 프로젝트 매니저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그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요업무로 예산관리, 인력관리 그리고 정보관리를 들 수 있다. 물론 연구기능이 주요 기능이지만 그것은 프로젝트의 목적이므로 거론의 여지가 없다. 예산관리와 인력관리는 한정적인 부문이나 정보관리는 관리능력에 따라 프로젝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정보관리는 크게 도큐멘테이션과 정보수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큐멘테이션이란 단순히 일지를 작성하는 작업에서부터 수집된 정보를 가공하고 조직하여 이용에 만전을 기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정보수집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도서관 업무임은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보사회에 있어 사서는 인터넷이라는 엄청난 정보창고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가공하여 프로젝트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정보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또 그래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듈다. 그 변화는 경우에 따라 도서관을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도래는 오히려 도서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재화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정보행위에 대한 기술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하였다. 이제 도서관은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기회로 바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